

碩士學位論文

高校生の性情報 媒體類型과 性態度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許 鐵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高 幸 子

1999年 8月

# 高校生の性情報 媒體類型과 性態度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許 鐵 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高幸子の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國文抄錄〉

高校生の性情報 媒體類型과 性態度에 관한 研究

高 幸 子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指導教授 許 鐵 洙

본 연구는 고교생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성정보 매체유형에 따라 그들의 성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교생들의 성교육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수준을 결정하며, 보다 나은 성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고교생의 성정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 획득하며 집단별(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고교생의 성지식 정도는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고교생의 성태도는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고교생의 성정보에 따른 매체유형별(교육, 언어, 인쇄, 영상, PC·전화매체) 성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내 인문·실업계, 남·여자고등학교 각 1개 교씩 총 4개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다시 학년별 무선 표집방법에 의하여 1개 학급씩 선정하여 조사 대상자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자의 개인적 특성(3문항),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10문항) 및 성에 대한 지식(20문항)·태도(8문항) 등을 포괄하여 총 4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PC<sup>+</sup> 프로그램을 거쳐 백분율, F검증 및 Chi-Square ( $\chi^2$ )검증 등을 실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이 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매체유형은 성정보 내용에 따라 다르고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지금까지의 성상담과 성교육 방식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성지식의 정도는 남학생, 고학년, 실업계학생일수록 높았지만 남·여학생 모두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의외로 결핍되어 있었으며, 성정보 매체유형별로는 교육, 영상, 언어, 인쇄, PC·전화매체 순으로 보다 더 정확한 성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애매 모호하고 이중적인 가운데 다분히 남성 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여학생은 여전히 순결이데올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고등학생들은 남녀 모두 성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주로 관심을 두는 방향이 달랐다. 즉 남학생, 인문계학생일수록 신체적, 시각적인 성적 자극에 관련된 반응이 높는데 비해 여학생은 정서적인 면과 관련된 반응이 훨씬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고등학생들은 교육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보수적, 소극적,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언어·인쇄·영상매체 등을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 능동적, 충동적이다. 또한 신체 접촉에 대한 성적 허용성은 언어, 영상, 인쇄, 교육매체 순으로 성적 허용성에 대하여 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성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 획득하고 있는가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연구의 제한점 .....	4
II. 이론적 배경 .....	5
1. 청소년기 성적 발달의 특성 .....	5
2. 청소년의 성정보와 매체유형 .....	8
3. 청소년의 성지식 정도와 성태도 .....	18
4. 청소년의 성정보 매체유형과 성태도 .....	21
III. 연구 방법 .....	24
1. 연구 대상 .....	24
2. 연구 도구 및 절차 .....	24
3. 자료 처리 .....	25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26
1.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의 집단별(성별, 학년별, 계열별) 차이 ...	26
2. 성지식 정도의 집단별 차이 .....	38
3. 성태도의 집단별 차이 .....	40
4. 성정보에 따른 매체유형별 성태도 .....	49
V. 요약, 결론 및 제언 .....	56
1. 요약 .....	56
2. 결론 .....	61
3. 제언 .....	62
참고문헌 .....	65
Abstract .....	70
부 록 .....	72

## 표 목 차

<표Ⅲ-1>	조사 대상자 현황 .....	24
<표Ⅳ-1>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 (종합) .....	27
<표Ⅳ-1.1>	집단별 피임방법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28
<표Ⅳ-1.2>	집단별 이성교제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29
<표Ⅳ-1.3>	집단별 임신과 출산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30
<표Ⅳ-1.4>	집단별 인공유산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31
<표Ⅳ-1.5>	집단별 성병/에이즈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32
<표Ⅳ-1.6>	집단별 남녀 생식기능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33
<표Ⅳ-1.7>	집단별 성행위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34
<표Ⅳ-1.8>	집단별 성폭력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35
<표Ⅳ-1.9>	집단별 자위행위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36
<표Ⅳ-1.10>	집단별 월경과 몽정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38
<표Ⅳ-2.1>	성지식 정도에 대한 성별, 학년별, 계열별 차이 .....	39
<표Ⅳ-2.2>	성지식 정도에 대한 성정보 매체유형별 차이 .....	40
<표Ⅳ-3.1>	가정에서 성에 대한 태도 .....	41
<표Ⅳ-3.2>	자기 자신이 성에 대한 태도 .....	42
<표Ⅳ-3.3>	선정적인 성묘사 대중매체에 대한 느낌 .....	43
<표Ⅳ-3.4>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 .....	44
<표Ⅳ-3.5>	혼전 순결유지에 대한 인식 .....	45
<표Ⅳ-3.6>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한 인식 .....	46
<표Ⅳ-3.7>	청소년기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한 인식 .....	47
<표Ⅳ-3.8>	청소년기 이성친구간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 .....	48
<표Ⅳ-4.1>	선정적인 성묘사 장면을 접했을 때 매체유형별 태도 .....	50
<표Ⅳ-4.2>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	51
<표Ⅳ-4.3>	혼전 순결유지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	52
<표Ⅳ-4.4>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	53
<표Ⅳ-4.5>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	54
<표Ⅳ-4.6>	이성친구간 허용되는 신체접촉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	55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性, sexuality)과 관련된 다양하면서도 많은 문제가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더 크고 복잡한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이(推移)이다. 성문제를 비밀스럽게 은폐하고 있는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 나라는 현재 성개방과 성혁명(sexual revolution)시대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전근대적, 근대적 또는 초현대적, 후기 산업사회적인 가치관과 이에 수반하는 성에 대한 태도와 의식이 모두 혼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홍강의, 1996). 그 안에서 청소년들의 성문화 역시 변화해 가고 있으며 그 변화의 정도는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미 ‘사서 보는 성’은 청소년기 남학생들간에는 상당 부분 공유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는 성문화’는 최근에 초등학교 학생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다(김정희, 1995). ‘감추어진 성’에서 ‘드러내는 성’으로, ‘억압받는 성’에서 ‘즐기는 성’으로 성 의식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성문화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훨씬 자유롭고 감각적이며 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규범에서 거의 일탈했거나 급속히 벗어나고 있다.

세상도 변했고 아이들도 변해 가는데 과거의 잣대로만 청소년들을 대해서는 점점 더 아이들과 멀어져서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생리적, 심리적 욕구에 따라 무슨 방법으로도든, 어떤 매체로도든 성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빠

르고 그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성장·변화하는 자신의 신체와 그에 대한 의문이나 불안을 해결할 만한 정확한 지식 또는 적절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청소년기에는 정신과 신체의 부조화 및 혼란을 겪게 되어 ‘성적 아노미 현상’에 빠지게 되고, 자아 정체감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사고와 통제력이 미숙하여 모방 성행동을 비롯한 성비행에 쉽게 빠질 수 있다(이현규, 1996). 이 때 발생하는 성문제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의 문제이면서 전인격적 문제요, 한 번의 사건이면서 일평생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적인 피해는 한 개인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특이성을 갖는다(김형태, 1998).

오늘날 우리 성문화의 세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성문화는 빠른 속도로 비대해져 가고 있으며 성별·연령을 불문하고 성폭력과 성적 방종이 난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정보사회의 급변하는 통신매체와 매스미디어를 통한 성적 자극물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래 집단, 만화방, 비디오방, PC방이나 각종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PC통신 등과 같은 성정보 매체는 성적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정보와 더불어 감각적인 성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체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자연처럼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환경이라 하겠다.

그래서 성에 관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개인이 가진 심리적인 성향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환경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옳게 바뀌지 않는 한, 올바른 청소년 성문화가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충동에 대한 사



회의 부정적 태도와 이해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갈등은 청소년기에 스스로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발달과업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성적 주체성 확립에 실패하게 되면 성적 발달장애를 초래하여 가족 및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부적응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이인섭, 1987).

청소년기의 성적 부적응은 바로 학업성적 부진으로 연계되고 그것은 학창시절을 좌절감과 무력감에 젖어 퇴폐적인 생활로 낭비하게 되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총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김상원, 1997).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 고취와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교생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성정보 매체유형에 따라 그들의 성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교생들의 성교육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수준을 결정하며, 보다 나은 성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청소년기에 있어서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매체는 주로 친구나 선배, 소설, 잡지, 만화, TV, 영화, 비디오, 컴퓨터 등을 들 수 있으며 여기서 얻어진 성정보는 다시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되는 여지(餘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교생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성정보 매체유형에 따라 그들의 성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고교생은 어떤 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며 집단별(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고교생의 성지식 정도는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고교생의 성태도는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고교생의 성정보에 따른 매체유형별(교육, 언어, 인쇄, 영상, PC·전화매체) 성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연구의 제한점

고교생의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 및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고 성정보 매체유형에 따라 그들의 성태도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을 제주도지역의 고등학생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연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셋째, 성에 대한 질문은 개인적인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솔직한 응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면접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법에 국한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청소년들의 성태도는 그들의 성지식 정도 및 성정보 매체유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 1. 청소년기 성적 발달의 특성

인간에게 있어서 성(性, sexuality)은 단순히 종족보존의 차원을 넘어 남녀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즐거움과 쾌락의 원천으로 발전하여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형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은 유아기, 아동기의 성장과정을 통해 서서히 기틀이 마련되다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극적인 탈바꿈을 함으로써 성인의 모습으로 변모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가 정상적인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신체와 성문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더구나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큰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을 초기(11·12세~14·15세), 중기(15·16세~17·18세), 후기(18·19세~20·21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청소년 초기 성적 발달의 특성

청소년기는 소아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서 신체적 성숙과 아울러 정신적·사회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생식기가 발달하여 제 2차 성징(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이 나타나는데 이를 사춘기(puberty)라 한다. 사춘기의 시작은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1~2년 빨라서 12세 정도이고 남자는 13세 정도로 여자보다 사춘기가 늦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이 활발히 공급되고 동시에 분비되는 성장호르몬

과 함께 작용하여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적인 급성장과 함께 성기 그 자체도 성인의 크기와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성적인 충동이 고조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성적인 충동은 정신적·내면적인 면보다 외적으로 노출된 육체적인 면에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심리적 특징을 보인다(한경희, 1991).

이러한 일련의 신체적·심리적 변화는 생물학적·유전적 요소에 의하여 거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가 있다(홍강의, 1993).

또한 이 시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이성에 대해 부정적 경향과 동성애적 현상이 많이 보인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 대하여 갖는 혐오감은 11세 정도에 극도에 달하는 반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 대해 갖는 혐오감은 13세 정도에 최고조에 달한다(이춘재 외, 1993). 그리고 14~15세가 되면 동성에 대하여 강한 성적 애착(crush)을 느끼거나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이성의 연장자에게 애착을 느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불안과 초조, 긴장 등이 쌓여 일시적인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이 시기에 정신병적 상태도 있을 수 있다(홍강의, 1993).

## 2) 청소년 중기 성적 발달의 특성

청소년 중기는 초기(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와 이로 인한 심리적 불균형이 안정되고 신체적으로 완전성숙이 이루어진 후부터 후기 청소년 이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기는 분명 성적으로 성숙했음을 인정하게 되고 이에 따르는 성적 역할에 신경 쓰게 되며 청소년 초기에 있던 동성애착이 이성애착으로 변하면서 이성의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사귀기를 희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 대상은 선택된 이성이 아니라 자기 앞에 나타난 이성이면 무조건 좋아하게 된다. 이를 '이성 열광

기'의 사랑(crazy love)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시기는 성적 정체성이 완성되는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성적 정체성이 불확실할 때에는 성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이에 대한 실험으로써 이성친구와 좀더 많이 사귀고 자기가 꼭 원해서가 아니더라도 성적인 접촉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남학생의 성충동은 이 시기에 가장 강하거나 충동적 폭발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서(심광원, 1989)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 때 부모에 대한 저항과 반항의 일부로서 성적인 행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

홍강의(1993)에 의하면 실제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청소년들은 성적 정체성 추구의 일부로서 실험 삼아 하는 경우 혹은 호기심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혹은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 보려는 수단으로써 성적인 관계를 갖는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나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완전한가', '성에 이상이 없는가' 하는 불안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측면 즉 상호 보완적 역할이나 애정의 공급 등 성적으로 완전한가, 충분한 성적 기술이 있는가 등의 불안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욱 더 성에 대하여 문제성을 갖게 한다.

더구나 성정보의 범람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면만이 강조됨으로써 더욱 더 성충동의 조절이나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힘든 시기가 바로 청소년 중기이다.

따라서 어른들이 보면 하찮은 사건에서도 청소년들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거나 상담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 3) 청소년 후기 성적 발달의 특성

이 시기는 이제까지 신체적인 성과 성역할, 성적 정체성 등이 완성되면서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나'라는 개념 즉 "나의 존재가 무엇이나, 나는 무엇인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나의 알맹이는 무

엇이나”하는 자아 정체성이 완성되는 시기로서 정체성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일어난다. 이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사춘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갖기 위해서 성적 정체감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때까지도 성적 정체감이 안 생겼을 경우 혹은 부모와의 관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부모와 계속적으로 반항과 저항의 싸움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성적 행동이나 성에 관한 정서적인 반응에 큰 영향을 끼쳐서 성적 이탈행동, 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개념과 태도를 지속할 수도 있다(홍강의, 1993).

그리고 이 시기 청소년들은 18세 전후에는 이성을 존경하고 수줍어하는 정신적 사랑(platonic love)이 진행되다가 20세 이후가 되면 서로 좋아하는 한 이성과 사귀며 결혼이나 자녀, 가정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는 연애(romantic love)가 이루어지게 된다(안창선, 1998).

그러나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의 압력에 의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성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수가 많은데 이에 따른 정서적인 반응은 매우 격렬할 수도 있고 첫 성교 경험의 실패로써 성적 관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갖는 수가 있으며 그 영향이 매우 오래 가는 수도 있다 (홍강의, 1993).

따라서 이 시기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자신의 성적인 역할과 사회적 역할이 사회적인 면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었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다.

## 2. 청소년의 성정보와 매체유형

근래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성정보가 넘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풍요 속의 빈곤이 또한 사실이다.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와 오히려 청소년들

의 그릇된 성지식과 성태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요즘 성정보의 실태다.

청소년들은 생리적·심리적 욕구에 따라 무슨 방법으로든, 어떤 매체로든 성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정보 매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정보 매체유형을 크게 교육매체(선생님에 의한 성교육 및 지도), 언어매체(친구, 선배들과 나누는 말), 인쇄매체(소설, 잡지, 만화, 신문 등), 영상매체(TV, 비디오, 영화 등), PC매체(게임, CD-ROM, PC통신 등), Phone매체(음성정보 등)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성정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육매체에 의한 성정보

우리 나라 성교육은 1950년 후반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78년에 처음으로 성과 관련된 「순결교육자료」(장학자료 28호)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순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교사용 성교육자료」(문교부, 1980)를 만들었고 1983년부터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0단계로 나누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교부, 1983).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성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성교육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체계적이지 못한 성교육 과정과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환경, 성문제에 대해 이원화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성교육의 기회 제공은 물론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교육은 보다 실질적인 것이어야 하며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길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을 금기시하는 유교적 성문화로 인해 보건학 수준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교육매체를 통해 성지식을 얻는 정보원을 살

펴보면 70년대 조사(안창선, 1976. 재인용)에서는 학교선생님(6.2%)이라는 반응이 상당히 낮았지만 80년대 조사(안창선, 1983. 재인용)에서는 비교적 높아졌고(18.4%) 90년대 들어서 조사한 자료(안창선, 1998)에서는 선생님이라는 반응(남: 22.0%, 여: 31.8%)이 한층 높아져 종전과는 달리 학교에서 성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밝히는 것처럼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은 필요성과 중요성만 강조되고 있을 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 성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아래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가르치는 성’이 아닌 ‘대화하는 성’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언어매체에 의한 성정보

언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써만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이해하게 하는 통로로써 언어를 통한 표현은 인지발달, 가치형성 및 인간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청소년 언어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능력·소비사회의 언어형태 및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공통성, 보편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는 청소년마다 성장·발달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시대나 사회의 변동에 따라 언어문화도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언어매체(친구·선배들과 나누는 말)에는 은어, 비속어사용 등이 있는데 은어는 본래 일정한 사회계층의 특수 언어를 일컫는 말로 특수한 집단 내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실례로 청소년들간에 쓰이는 성행동의 은어를 살펴보면 첫 경험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해보았는지를 따지는 말로 ‘생(처녀)’, ‘아다(처음 해본 사람)’, ‘후다(많이 한 경우)’로 일컫고 있으며 성행위를 ‘콩 간다’ 하고 애무하는 것을 ‘반콩 간다’고 하며 성관계를 많이 한 아이들을 ‘콩꾼, 콩녀’라고 말한다. 또한 횟수를 표현하는 말로 성행위 10번을 ‘한 접시’라고 표현한다(또 하나의 문화동인들, 1997).

청소년들이 언어매체를 통해 성지식을 얻는 정보원을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면 70년대(안창선, 1976. 재인용), 80년대(이귀현, 1985), 90년대(한경희, 1991; 김영화, 1992; 김정일, 1992; 양성숙, 1992;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안창선·이육범, 1996; 김상원 외, 1997) 모두 ‘친구’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인섭(1987)의 “학생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는 성지식 정보원이 ‘친구’인 경우가 학생 청소년(57%)보다 비행 청소년(82%)이 훨씬 많은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언어매체(친구·선배)를 통해 성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은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지식을 갖게 될 수 있으며 감추어진 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박현선(1986)의 연구 ‘인적 매체와 성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를 통해 성지식을 얻는 학생이 부모나 교사를 통해 성지식을 얻는 학생보다 ‘키스나 포옹하기’, ‘이성 교체’, ‘동성친구에게서 성적 충동을 느낀 경험’, ‘자위행위 경험’, ‘음란소설이나 도색사진 보기’ 등의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3) 인쇄매체에 의한 성정보

인쇄매체는 영상매체와는 달리 수용자가 시간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며 청소년들과 접촉차원에서 장소의 한정을 받고 있지 않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은 이성관계나 성행위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제약 및 금지 때문에 소설, 잡지, 주간지, 만화, 신문(스포츠 신문) 등을 통해 성 기사를 읽는 행위와 같은 간접적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감상적 야만성, 폭력 등의 감각적 도취가 짙게 표현된 부분만 골라 읽는다는 점이 인쇄매체에서의 문제다.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퇴폐적이고 음란한 내용일수록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선정적인 글, 음란한 사진, 퇴폐적·폭력적 만화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을 파괴하고 성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등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예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저질 성인만화는 학교폭력과 청소년들의 성윤리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요즘은 일본 만화가 ‘폭력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인쇄매체와의 접촉을 갖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70년대 조사(안창선, 1976. 재인용)에서는 인쇄매체를 통해 성지식을 얻는 정보원으로 신문·소설·잡지(52.0%)가 가장 높은 순위였고 80년대 조사(안창선, 1983. 재인용)에서는 신문·소설·잡지(18.4%)로 나타났다.

박현선(1986)의 조사에서는 주간지·잡지(57.2%)로 나타났으며 심광원(1989)의 조사에서는 대중잡지(48.7%), 신문(4.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0년대 조사(김상원 외, 1996, 1997)에서는 인쇄매체를 통해 (남고생: 37.1%, 여고생: 18.4%) 성지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선(1986)의 조사를 살펴보면 주간지나 잡지를 통해 성지식을 얻는 학생이 영화를 통해 성지식을 얻는 학생보다 ‘자위행위’, ‘이성이 입고 있는 물건 훔치기’ 등의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인쇄매체를 통해 성지식을 얻는 학생들은 비교적 음성적인 성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70년, 80년대에 신문·소설·잡지가 성지식의 정보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이 시기에는 영상매체나 PC·전화매체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거나 이들 매체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90년대 조사에서 인쇄매체를 통한 성정보가 떨어진 것은 이제는 신문이나 잡지인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영상매체인 비디오, PC매체, Phone매체가 새로운 성지식의 정보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 4) 영상매체에 의한 성정보

영상매체 중 TV, 비디오, 영화는 개인에게 쉽게 접촉되고 있어 강한 영향력을 가진 매스미디어라 할 수 있다. 영상매체는 청소년들의 상상력이나 지적인 면을 키워주는 데 큰 기여를 하는 반면 정서적·소비 지향적면에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다.

영상매체가 청소년들의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지나친 환상적 감각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또는 청소년들에게 적절치 않은 상업적·사치적·쾌락적·소비 지향적 세계를 충족하려는 욕구를 영상매체를 통해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영상매체에서의 성은 그것들이 가져야 할 예술성을 저버리고 흥미본위의 저속한 오락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을 자극하는 관능적 표현과 영상을 통한 애무장면, 육체의 노출, 키스나 포옹장면 등은 청소년들의 감각을 자극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폭력이나 강도 등 심각한 범죄를 범한 사람일수록 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TV에서 애정장면을 목격한 후에 모방충동을 느낀 비율이 비행청소년들은 약 60%로서 일반학생들의 13.1%에 비해 약 5배나 높았으며 실제로 모방행위를 한 비율은 일반학생에 비해 약 10배(비행학생 24.4%, 일반학생 2.6%)나 되었다(교육부, 1993). 이는 TV나 비디오의 성적 장면이 청소년들의 성태도 및 성적 자아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영상매체가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것은 내용 자체

가 상품화를 주목적으로 삼고 있어 저속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그것들이 또한 정화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깊숙이 침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규(1996)에 의하면 영상매체가 사회에 대한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건전한 영상문화는 생물학적인 부조화나 자아 정체감의 불안정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박현선(1986)의 조사에서 영화를 통해 성지식을 얻고 있는 학생이 주간지나 잡지를 통해 성지식을 얻고 있는 학생보다 ‘성교 경험’, ‘이성 교제’, ‘동성친구에게서 성적 충동을 느낀 경험’ 등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영상매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얻는 성지식은 70년대 조사(안창선, 1976. 재인용)에서는 영화·TV·라디오(17.0%), 80년대 조사(안창선, 1983. 재인용)에서는 영화·TV·라디오(18.9%)로 나타났으며 박현선(1986)의 조사에서는 영화(18.9%), TV(18.2%)로 나타났다. 그리고 90년대 조사(이병우, 1996)에서는 TV(고등학생: 61.6%, 대학생: 31.9%)로 나타나고 있다.

최수일(1996)이 연구한 “대중매체가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중매체의 접촉 경향은 TV(69.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비디오(20.8%), TV(19.0%)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비디오의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 5) PC매체에 의한 성정보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유용한 학습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게임의 도구 또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는 모뎀을 통해 통신망에 접속하여 아직 들어본 적 없고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데

에 매료되어 있다.

청소년들에게 컴퓨터가 음란물 전달매체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CD-ROM을 통해 성인잡지에서 제공하는 음란물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PC통신의 경우는 익명성의 장점을 이용하여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띄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 속에는 낯뜨거운 포르노 화면을 주고받거나 매춘을 권유하는 음란 정보가 활개치고 있다. 이처럼 ‘열린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열린 흥등가’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서 요즘 청소년 음란문화는 예전과는 달리 ‘사이버 포르노’로 특징 지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성지식을 얻는 정보원으로 PC매체에 대한 선행 연구는 70년, 80년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90년대 조사(김상원 외, 1997)에서는 성지식 출처가 컴퓨터(0.2%)로 나타났고 양제순(1998)의 조사에서는 PC통신과 인터넷(2.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PC매체를 통해 성지식을 얻는 경우는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3)의 조사에 의하면 62.9%의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통해 음란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PC통신 상담에 대한 설문조사(김병석 외, 1998)에서는 인문고(24.6%), 실업고(36.7%)가 PC통신을 통해서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 달에 1~2회(인문고: 23.5%, 실업고: 24.5%)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실업고인 경우에는 매일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22.6%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의 TV나 비디오처럼 앞으로 PC보급율이 높아지면 영상매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성충동을 자극하는 매개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청소년들은 컴퓨터 음란물의 특징인 복제가 쉽고 또한 PC통신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어 거리에 제한 없이 전파된다는 것을 남용

하고 있는 반면 현재 청소년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들 중 상당수가 컴퓨터의 문외한이거나 게임의 내용에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유해한 내용의 컴퓨터 게임을 하는지조차 몰라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 6) Phone매체를 이용한 성정보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매체로 Phone매체를 들 수 있다. 전화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용건과 중요한 정보만을 교류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전화는 단순한 의사표시나 정보교환 이외에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그들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Phone매체는 공부, 시험,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찌든 생활 속에서 서로간에 통화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위로 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전화나 호출기는 공적인 업무를 위한 도구라기보다 ‘친구들과 돌아다니기’, ‘청춘사업(남자 친구/여자 친구 사귀기)’ 등 그들의 탈출구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또 하나의 문화동인들, 1997).

전화를 이용한 음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아직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고 있지만 성 관련 내용을 정보화한 것이 음성정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폰팅, 음성정보, 폰섹스 등이 그 한 실질적인 사례가 된다.

성문화연구소(1996)에서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성충동의 해소방법으로 PC통신(4.3%) 및 음란전화(3.1%)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김혜숙(1998)은 국내에서의 폰섹스라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음란전화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김규원(1997)에 의하면 1994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국제 음란전화

를 이용한 국내 통화수가 무려 48만 2천 통이라는 보고도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1995)의 조사를 보면 이성친구와의 전화통화 시간을 알아본 바, 주 1회 이상이 5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규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30.1%, 월 1회 이상이 3.0% 등으로 나타났으며 한 번 전화할 때의 통화 시간은 30분 이상 60분 미만이 32.8%, 10분 이상 30분 미만이 31.3%, 60분 이상이 25.7% 등으로 용건만을 전한다고 보기에 다소 긴 시간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전화통화는 용건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그 자체를 데이트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성친구와 호출기나 음성사서함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을 해 본 경험을 알아 본 결과 이용해 본 청소년이 60.8%, 이용해 보지 않은 청소년이 39.2%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호출기나 음성사서함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계획협회(1997)의 “청소년 성 상담전화 활동보고서”에서 상담전화의 이용자를 연령별로 살펴 볼 때 15세에서 20세 사이가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21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이 17.1%로 나타난 것을 보면 청소년들 상당수가 성적인 문제 해결을 Phone매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매체를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성을 주제로 한 언어매체나 무한하게 쏟아지는 인쇄, 영상, PC·전화매체 등에서 성정보를 얻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매체들에서 보여지는 성은 기본적인 지식을 도외시하고 지엽적이거나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정보만을 취사선택하여 공급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으며 남녀관계 매개체로서의 성보다 보는 성, 듣는 성, 컴퓨터 성 등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성행위를 표현하는 모든 매체로부터 상처입고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에게 노출되는 성적 이미지는 시각적 표현이든 언어적 표현이든 간에 포르노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매체를 이용한 올바른 성교육이 없는 한, 이러한 매체들은 올바른 성지식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왜곡된 성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3. 청소년의 성지식 정도와 성태도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같이 성에 대한 정보의 범람과 성도덕의 혼란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기 쉽고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변화에 따른 그들의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올바른 성의식, 건전한 성태도, 분별 있는 성습관을 지님으로써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문화, 사회적 규범에 어울리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에는 신체적인 성, 심리적인 성, 사회적인 성 세 요소가 혼합되어 있고 이들이 적당한 평형관계를 이룰 때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홍강의, 1996)고 한다면 급격한 신체적 변화에 따라 성에 대해 큰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무엇보다도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는 인간 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김설희, 1991; 장경숙 재인용)고 하였다.

Hurlock(1973)은 사춘기에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 여하는 평생 동안의



성적 태도를 좌우하는데 이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지식을 얻는 시기와 범위,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성에 관한 태도가 좌우된다(Brodek & Fowler, 1951; 장광자 재인용)고 한다.

그런데 성에 대한 태도는 드러나는 행동과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행동이 아주 다른 동기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성에 대한 본인의 태도나 가치관과는 관계없이 성행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에서 성행동이 성에 대한 태도보다 더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흔히 인지불협이론(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혼전 성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도 일단 경험하고 나면 그 후의 태도는 실제의 행동에 맞게 변화된다는 것이다(이춘재 외, 1993).

Carrera(1981)는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성지식으로 이어질 것이며 성지식은 다시 성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성행동에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은정(1990)의 연구에서 성지식 정도와 성에 대한 태도 정도와의 상관관계에서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사이에 순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자료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성지식 정도와 성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의 성지식을 살펴보면 이은정(1990)의 연구에서 고교생의 성지식을 조사한 결과 정답률이 전체 20문항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식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학생(8.98±3.05)이 여학생(7.51±3.23)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희(1991)의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정도를 내용별로 변량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2.5~2.7정도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양제순(1998)은 “제주도 중·고등학교 성교육 실태” 연구에서 자신이 인

지하고 있는 성에 관한 지식을 분석한 결과 군 지역보다 시 지역이 높았고 남학생보다 여학생,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실업계보다 인문계,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지식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은정(1990)의 연구에서는 생식생리에 관한 내용의 느낌과 성의 규범적 행위에 대한 내용의 느낌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의 비규범적 행위에 대한 내용의 느낌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종희(1991)의 조사에서는 중등학교 여학생들이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보였고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고등학생, 고학년일수록 학생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에서는 ‘혼전 순결은 꼭 지켜야 한다’(55.3%)는 반응을 보인 반면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로는 ‘서로 사랑한다면 문제가 될 것 없다’(49.3%), ‘앞으로 결혼을 약속했다면 괜찮다’(14.4%), ‘순결 자체가 그렇게 문제될 것 없다’(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제순(1998)의 조사에서는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성태도 역시 성지식과 마찬가지로 시 지역·여학생·고등학생·인문계학생일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광자(1996)의 연구에서는 TV 및 영화 등을 통해 성적 장면을 목격했을 때 남자(51.5%), 여자(17.5%)가 성적 충동을 느끼고 남자(32.5%), 여자(39.8%)가 심리적인 흥분과 쾌감을 느끼며 3%의 남녀가 ‘모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병우(1996)의 조사에 의하면 성적 장면을 목격했을 때 ‘호기심이 생긴다’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욱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고(남: 58.4%, 여: 34.3%)있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욱 강하게 창피함을 느끼고 있어서(남: 18.9%, 여: 33.0%) 남녀간의 대조를 이

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혜옥(1986)의 조사에서는 중·고·대학생들이 쌍쌍으로 다니는 모습을 볼 때의 느낌에 대해서는 ‘해 보고 싶다’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써(남: 43.9%, 여: 24.4%)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며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인섭(1987)의 “학생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성에 대한 연상에 있어서는 학생 청소년이 57%, 비행 청소년 64%가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학생 청소년(30%)보다 비행 청소년(40%)이 성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죄의식과 수치심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조사, 연구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빈곤한 상태에 있으며 성에 대한 태도가 충동적이고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이은정, 1990; 최순희, 1990)의 결과면에서 본다면 성적 태도는 본성적인 측면 못지 않게 학습적인 측면이 많고 개인적인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이 많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 성정보 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매체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의 태도가 형성·발달된다고 할 수 있다.

#### 4. 청소년의 성정보 매체유형과 성태도

영화, 비디오, PC 등 영상매체와 멀티미디어시대에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게 될까, 또한 그들의 성정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 획득되고 어떻게 학습되는 것일까. 아마도 오늘날의 부모, 가정환경, 학교 등의 영

향보다 대중매체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3)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비디오·TV·PC통신 등과 같은 매체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체들은 자극적이고 가치판단이 배제된 채 즉각적이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본다면 이현규(1996)는 영상매체의 성표현 장면의 시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성적 충동의 유발정도와 모방 성행동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영상매체의 성표현 장면시청은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상매체의 성표현 장면시청이 모방 성행동으로 직접 연계되는 것보다는 성적 충동의 유발을 통해 모방 성행동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거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현(1997)은 음란·폭력매체의 접촉이 성관련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체의 접촉정도는 성관련 비행의 전체 분산 중 5%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은 성관련 비행의 전체 분산 중 3%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관련 비행에 있어서 음란·폭력매체의 접촉은 청소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음란성과 폭력성 충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체를 통한 성정보 획득은 청소년들에게 성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성정보의 내용 자체가 불건전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그러한 정보를 적절히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폐해이다. 둘째로, 성정보의 내용 자체가 저질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이다. 즉 저질적이고 불건전한 성정보를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동일한 내용을 접하는 성인보다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

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로, 언어매체(친구·선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정보가 모두 건전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없다. 언어매체를 통해 얻는 성정보는 성의 왜곡이나 무지에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그 한 예로 Exner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얻은 성적 지식의 효과가 좋으나, 나쁘냐하는 것을 물어 보았던 바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 79%, 좋다고 판단한 것은 불과 9%로서 나머지 10%는 어느 것도 아니라고 보고하고 있다(장병림, 1976). 넷째로, 영상매체 심취로 다양하고 밀접한 인간유대는 소홀해지고 자기 중심적·폐쇄적 참여 의식이 강해질 수 있다. 특히 왜곡된 성정보를 접하게 될 때 결국 혼자만의 세계에서 왜곡된 정보를 지닌 채 지내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전자매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무절제한 사이버 탐닉은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성정보를 아무런 여과 없이 수용한다면 성을 쾌락으로만 인식하고 성충동·모방충동·성적 공격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정보 매체는 성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성인 비디오방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행동과 정서적 속성을 관찰한 결과 첫째로, 스스로를 가리켜 ‘outsider’ 나 ‘버려진 돌들’ 또는 ‘패배자’, ‘문제아’라고 자기비하에 의해 자신들의 삶과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 곳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은 대개가 사회·가정·학교에 대하여 막연한 분노감을 갖고 있다. 셋째로, 이들에게는 ‘공존의 개념’이나 ‘문화의 공유’라는 개념의 상실도 문제로 대두된다. 즉 같은 학생이고 같은 10대에 처해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는 우리와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질 문화지대’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로, 이들에게는 비디오시청을 단순히 시각적 만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방범죄’로까지 연장하는 행동적 사고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집단의 정신적 특성을 보면 또래집단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팽창’을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다(이현규, 1996).

### Ⅲ.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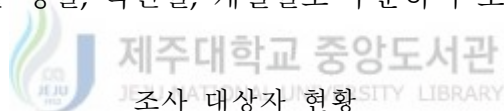
본 연구의 방법은 설문 조사로서 그 대상, 도구와 절차 및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조사 대상은 제주도내 소재하고 있는 인문·실업계, 남자·여자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총 4개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의 학년별, 1개 반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6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조사 대상자 현황

(%)

구 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실업계	인문계	
인원	313	300	206	204	203	305	308	613
(%)	(51.1)	(48.9)	(33.6)	(33.3)	(33.1)	(49.8)	(50.2)	(100.0)

#### 2.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관련문헌과 선행연구의 내용 및 설문지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본 연구자가 만들어 첨가하였다.

예비조사는 1998년 7월 13일 북제주군 내 고등학교 남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1998년 9월 14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조사 대상학교의 양호교사가 직접 학급단위로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학교에 160부씩 총 6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1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구성은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사항 3문항,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10문항, 성에 대한 지식 20문항, 성에 대한 태도 8문항 등 총 4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PC<sup>+</sup> Program을 사용하였다.

둘째, 설문지의 조사로 얻어진 자료는 각 문항별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셋째, 조사 대상자의 배경 변인과 각 조사 문항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x^2$ ), F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성정보를 획득하는 매체유형에 따라 성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 성지식의 정도, 성태도 등에 대한 집단별 차이와 성정보에 따른 매체유형별 성태도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 1.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의 집단별(성별, 학년별, 계열별) 차이

고등학생들이 성정보(내용별)를 획득하는 매체유형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0개 항목을 제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IV-1>은 고등학생들이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IV-1>에서 고등학생들이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에 대하여 먼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임방법, 임신과 출산, 남녀생식기능, 월경과 몽정 등에 대한 정보는 교육매체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성교제, 자위행위 등에 대한 정보는 언어매체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인공유산, 성병/에이즈, 성행위, 성폭력 등은 영상매체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매우 낮지만 성폭력(2.7%), 자위행위(2.9%) 등에 대한 정보는 PC·전화매체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다른 성정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 (종합) (%)

유형 \ 성정보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계 (%)
피임방법	253 (47.0)	125 (23.2)	94 (17.5)	59 (11.0)	7 (1.3)	538 (100.0)
이성교제	37 (6.6)	417 (74.1)	3.0 (5.3)	72 (12.8)	7 (1.2)	563 (100.0)
임신과 출산	316 (55.8)	52 (9.2)	40 (7.1)	155 (27.4)	3 (0.5)	566 (100.0)
인공유산	237 (41.3)	33 (5.7)	33 (5.7)	265 (46.3)	6 (1.0)	574 (100.0)
성병/에이즈	206 (36.3)	37 (6.5)	75 (13.2)	244 (43.1)	5 (0.9)	567 (100.0)
남녀생식기능	347 (60.7)	65 (11.4)	48 (8.4)	108 (18.9)	4 (0.6)	572 (100.0)
성행위	21 (3.8)	147 (26.6)	59 (10.7)	320 (58.0)	5 (0.9)	552 (100.0)
성폭력	45 (8.2)	62 (11.4)	84 (15.4)	340 (62.3)	15 (2.7)	546 (100.0)
자위행위	130 (24.2)	194 (36.1)	96 (17.8)	102 (19.0)	16 (2.9)	538 (100.0)
월경과 몽정	364 (65.8)	97 (17.5)	45 (8.1)	43 (7.9)	4 (0.7)	553 (100.0)

고등학생들이 집단별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집단별(성별, 학년별, 계열별) 피임방법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표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피임방법에 대한 정보는 교육, 언어, 인쇄, 영상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1>에서 피임방법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남학생은 피임방법에 대한 정보를 언어, 교육 그리고 인쇄매체의 순으로 획득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교육, 언어, 인쇄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언어·인쇄·영상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

다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이 높게 나타났다( $\chi^2=63.48, p<.01$ ).

학년별로는 매체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가 언어, 교육, 인쇄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실업계는 교육, 인쇄, 언어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는 실업계보다 언어·인쇄·영상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실업계는 인문계보다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이 높게 나타났다( $\chi^2=48.26, p<.01$ ).

<표IV-1.1> 집단별 피임방법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구 분		유 형	집단별 피임방법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chi^2$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성 별	남		82(30.4)	83(30.7)	65(24.1)	34(12.6)	6(2.2)	63.48 **
	여		171(63.8)	42(15.7)	29(10.8)	25(9.3)	1(0.4)	
학 년 별	1학년		71(43.0)	44(26.7)	28(17.0)	19(11.5)	3(1.8)	9.48
	2학년		97(53.0)	31(16.9)	31(16.9)	23(12.6)	1(0.5)	
	3학년		85(44.7)	50(26.3)	35(18.4)	17(8.9)	3(1.6)	
계 열 별	인문계		87(33.3)	89(34.1)	48(18.4)	34(13.0)	3(1.1)	48.26 **
	실업계		166(59.9)	36(13.0)	46(16.6)	25(9.0)	4(1.4)	

\*\*p<.01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과 실업계학생은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은 반면 남학생, 인문계학생은 언어·인쇄·영상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다. 그리고 PC·전화매체에 의한 정보획득은 매우 낮다.

## 2) 집단별 이성교제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표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이성교제에 대한 정보는 언어, 영상, 교육, 인쇄매체의 순으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IV-1.2> 집단별 이성교제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구 분	유 형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x <sup>2</sup>
		성 별	남	25(9.1)	180(65.5)	16(5.8)	
여	12(4.2)	237(82.3)	14(4.9)	24(8.3)	1(0.3)		
학 년 별	1학년	13(7.2)	131(72.4)	12(6.6)	24(13.3)	1(0.6)	4.21
	2학년	13(6.8)	140(72.9)	8(4.2)	27(14.1)	4(2.1)	
	3학년	11(5.8)	146(76.8)	10(5.3)	21(11.1)	2(1.1)	
계 열 별	인문계	19(6.5)	220(75.3)	13(4.5)	37(12.7)	3(1.0)	1.24
	실업계	18(6.6)	197(72.7)	17(6.3)	35(12.9)	4(1.5)	

\*\*p<.01

<표IV-1.2>에서 이성교제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성교제에 대한 정보를 언어매체로 획득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영상·교육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이 높게 나타났다( $x^2=23.77, p<.01$ ).

학년별·계열별로는 매체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언어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영상·교육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3) 집단별 임신과 출산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표IV-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는 교육·영상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IV-1.3>에서 임신과 출산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육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영상·언어·인쇄

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이 높게 나타났다( $\chi^2=66.56, p<.01$ ).

학년별·계열별로는 매체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IV-1.3> 집단별 임신과 출산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구 분		유 형					$\chi^2$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성 별	남	113(40.1)	38(13.5)	35(12.4)	94(33.3)	2(0.7)	66.56 **
	여	203(71.5)	14(4.9)	5(1.8)	61(21.5)	1(0.4)	
학 년 별	1학년	109(59.2)	17(9.2)	6(3.3)	50(27.2)	2(1.1)	11.61
	2학년	111(57.8)	14(7.3)	18(9.4)	48(25.0)	1(0.5)	
	3학년	96(50.5)	21(11.1)	16(8.4)	57(30.0)	-	
계 열 별	인문계	154(53.1)	30(10.3)	18(6.2)	87(30.0)	1(0.3)	4.15
	실업계	162(58.7)	22(8.0)	22(8.0)	68(24.6)	2(0.7)	

\*\*p<.01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영상·언어·인쇄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PC·전화매체에 의한 정보획득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4) 집단별 인공유산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표IV-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인공유산에 대한 정보는 영상·교육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4>에서 인공유산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남학생은 영상·교육매체의 순으로 획득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교육, 영상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영상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

났다( $\chi^2=72.94$ ,  $p<.01$ ).

학년별로는 2학년(48.4%), 1학년(41.4%), 3학년(34.0%) 순으로 교육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영상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은 3학년(48.7%), 1학년(47.6%), 2학년(42.2%) 순으로 나타났다( $\chi^2=23.08$ ,  $p<.01$ ).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가 영상, 교육, 언어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반면 실업계는 교육, 영상, 인쇄매체의 순으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chi^2=28.68$ ,  $p<.01$ ).

<표IV-1.4> 집단별 인공유산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구 분		유 형					$\chi^2$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성 별	남	72(25.2)	25(8.7)	27(9.4)	156(54.5)	6(2.1)	72.94 **
	여	165(57.3)	8(2.8)	6(2.1)	109(37.8)	-	
학 년 별	1학년	79(41.4)	10(5.2)	6(3.1)	91(47.6)	5(2.6)	23.08 **
	2학년	93(48.4)	6(3.1)	11(5.7)	81(42.2)	1(0.5)	
	3학년	65(34.0)	17(8.9)	16(8.4)	93(48.7)	-	
계 열 별	인문계	93(31.8)	23(7.9)	13(4.5)	159(54.5)	4(1.4)	28.68 **
	실업계	144(51.1)	10(3.5)	20(7.1)	106(37.6)	2(0.7)	

\*\* $p<.01$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 2학년, 실업계학생일수록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과 3학년, 인문계학생은 영상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PC·전화매체에 의한 정보획득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5) 집단별 성병/에이즈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표IV-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성병/에이즈에 대한 정보는 영상, 교육, 인쇄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5> 집단별 성병/에이즈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구 분		유 형					x <sup>2</sup>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성 별	남	82(28.5)	32(11.1)	47(16.3)	122(42.4)	5(1.7)	38.50 **
	여	124(44.4)	5(1.8)	28(10.0)	122(43.7)	-	
학 년 별	1학년	47(26.7)	15(8.5)	18(10.2)	93(52.8)	3(1.7)	28.80 **
	2학년	92(47.8)	9(4.7)	23(12.0)	66(34.4)	2(1.0)	
	3학년	67(35.4)	13(6.9)	34(18.0)	75(39.7)	-	
계 열 별	인문계	102(35.5)	27(9.4)	28(9.8)	127(44.3)	3(1.0)	14.04 **
	실업계	104(38.5)	10(3.7)	47(17.4)	107(39.6)	2(0.7)	

\*\*p<.01

<표IV-1.5>에서 성병/에이즈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여학생은 교육·영상매체 등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인쇄·언어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이 높게 나타났다( $x^2=38.50$ ,  $p<.01$ ).

학년별로는 2학년(47.8%)이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학년(52.8%)은 영상매체에 의한 정보획득이 높게 나타났다( $x^2=28.80$ ,  $p<.01$ ).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영상·언어매체 등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실업계는 인문계보다 교육·인쇄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다( $x^2=14.04$ ,  $p<.01$ ).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학생, 고학년, 실업계학생일수록 인쇄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 2학년은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문계, 1학년은 영상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6) 집단별 남녀 생식기능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표IV-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남녀 생식기능에 대한 정보는 교육, 영상, 언어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6> 집단별 남녀 생식기능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구 분 \ 유 형		매체유형					x <sup>2</sup>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성 별	남	113(39.9)	55(19.4)	39(13.8)	72(25.4)	4(1.4)	108.04 **
	여	234(81.0)	10(3.5)	9(3.1)	36(12.5)	-	
학 년 별	1학년	115(61.5)	23(12.3)	14(7.5)	35(18.7)	-	16.08 *
	2학년	123(63.4)	24(12.4)	17(8.8)	26(13.4)	4(2.1)	
	3학년	109(57.1)	18(9.4)	17(8.9)	47(24.6)	-	
계 열 별	인문계	158(54.3)	38(13.0)	17(5.8)	76(25.9)	3(1.0)	26.96 **
	실업계	188(67.4)	27(9.7)	31(11.1)	32(11.5)	1(0.4)	

\*p<.05, \*\*p<.01

<표IV-1.6>에서 남녀 생식기능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여학생이 교육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영상·언어·인쇄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108.04$ ,  $p<.01$ ).

학년별로는 2학년(63.4%), 1학년(61.5%), 3학년(57.1%) 순으로 교육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영상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은 3학년(24.6%), 1학년(18.7%), 2학년(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x^2=16.08$ ,  $p<.05$ ).

계열별로 보면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교육·인쇄매체 등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인문계는 실업계보다 영상·언어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26.96$ ,  $p<.01$ ).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 2학년, 실업계학생일수록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은 반면 남학생, 3학년, 인문계학생은 영상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다.

그리고 PC·전화매체에 의한 정보획득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7) 집단별 성행위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표IV-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성행위에 대한 정보는 영상·언어매체 등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7> 집단별 성행위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구 분	유 형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x <sup>2</sup>
		성 별	남	7(2.6)	85(31.3)	25(9.2)	
여	14(5.0)	62(22.1)	34(12.1)	170(60.7)	-		
학 년 별	1학년	8(4.7)	50(29.4)	12(7.1)	98(57.6)	2(1.2)	10.79
	2학년	6(3.2)	42(22.1)	28(14.7)	111(58.4)	3(1.6)	
	3학년	7(3.6)	55(28.6)	19(9.9)	111(57.8)	-	
계 열 별	인문계	7(2.4)	94(32.3)	19(6.5)	169(58.1)	2(0.7)	20.88 **
	실업계	14(5.4)	53(20.3)	40(15.3)	151(57.9)	3(1.1)	

\*\*p<.01

<표IV-1.7>에서 성행위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행위에 대한 정보를 언어매체에 의해 획득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영상·인쇄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x<sup>2</sup>=13.44, p<.01).

학년별로는 매체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영상·언어매체 등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반면 실업계는 인문계보다 인쇄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20.88$ ,  $p<.01$ ).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학생, 인문계학생일수록 언어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 실업계학생은 인쇄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8) 집단별 성폭력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표IV-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성폭력에 대한 정보는 영상, 인쇄, 언어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IV-1.8>                      집단별 성폭력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구 분 \ 유 형		집단별 성폭력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x^2$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성 별	남	17(6.3)	30(11.1)	42(15.5)	168(62.0)	14(5.2)	14.03 **
	여	28(10.2)	32(11.6)	42(15.3)	172(62.5)	1(0.4)	
학 년 별	1학년	18(10.6)	13(7.6)	16(9.4)	114(67.1)	9(5.3)	22.78 **
	2학년	16(8.5)	18(9.5)	33(17.5)	118(62.4)	4(2.1)	
	3학년	11(5.9)	31(16.6)	35(18.7)	108(57.8)	2(1.1)	
계 열 별	인문계	22(7.7)	38(13.3)	34(11.9)	183(64.0)	9(3.1)	7.59
	실업계	23(8.8)	24(9.2)	50(19.2)	157(60.4)	6(2.3)	

\*\* $p<.01$

<표IV-1.8>에서 성폭력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폭력에 대하여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PC·전화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14.03$ ,  $p<.01$ ).

학년별로는 저학년일수록 영상·교육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은 반면 고학년일수록 인쇄·언어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2.78, p<.01$ ).

계열별로 보면 매체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 저학년일수록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PC·전화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학년일수록 인쇄·언어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9) 집단별 자위행위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표IV-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자위행위에 대한 정보는 언어, 교육, 영상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9> 집단별 자위행위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구분 \ 유형		매체유형					$\chi^2$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성별	남	30(10.9)	154(56.2)	44(16.1)	35(12.8)	11(4.0)	117.49 **
	여	100(37.9)	40(15.2)	52(19.7)	67(25.4)	5(1.9)	
학년별	1학년	23(14.4)	68(42.5)	23(14.4)	38(23.8)	8(5.0)	19.87 *
	2학년	52(27.5)	66(34.9)	34(18.0)	33(17.5)	4(2.1)	
	3학년	55(29.1)	60(31.7)	39(20.6)	31(16.4)	4(2.1)	
계열별	인문계	61(22.0)	100(36.1)	32(11.6)	75(27.1)	9(3.2)	33.73 **
	실업계	69(26.4)	94(36.0)	64(24.5)	27(10.3)	7(2.7)	

\*p<.05, \*\*p<.01

<표IV-1.9>에서 자위행위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남학생은 자위행위에 대한 정보를 언어, 인쇄

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교육, 영상, 인쇄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언어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육·영상·인쇄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chi^2=117.49$ ,  $p<.01$ ).

학년별로는 저학년일수록 언어, 영상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학년일수록 교육, 인쇄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9.87$ ,  $p<.05$ ).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가 언어, 영상, 교육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실업계는 언어, 교육, 인쇄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영상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실업계는 인문계보다 인쇄·교육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chi^2=33.73$ ,  $p<.01$ ).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학생, 저학년, 인문계학생일수록 언어매체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여학생, 고학년, 실업계학생은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성정보에 비해 PC·전화매체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 집단별 월경과 몽정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표IV-1.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월경과 몽정에 대한 정보는 교육, 언어매체의 순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10>에서 월경과 몽정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경과 몽정 정보에 대하여 언어·인쇄·영상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

생은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59.58$ ,  $p<.01$ ).

학년별로는 매체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영상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는 인문계보다 인쇄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x^2=11.38$ ,  $p<.05$ ).

<표IV-1.10> 집단별 월경과 몽정 정보에 대한 매체유형 (%)

구 분 \ 유 형		매체유형 (%)					$x^2$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성 별	남	137(50.0)	60(21.9)	38(13.9)	36(13.1)	3(1.1)	59.58 **
	여	227(81.4)	37(13.3)	7(2.5)	7(2.5)	1(0.4)	
학 년 별	1학년	125(70.2)	30(16.9)	10(5.6)	12(6.7)	1(0.6)	13.56
	2학년	131(68.9)	31(16.3)	14(7.4)	11(5.8)	3(1.6)	
	3학년	108(58.4)	36(19.5)	21(11.4)	20(10.8)	-	
계 열 별	인문계	184(65.5)	48(17.1)	16(5.7)	30(10.7)	3(1.1)	11.38 *
	실업계	180(66.2)	49(18.0)	29(10.7)	13(4.8)	1(0.4)	

\* $p<.05$ , \*\* $p<.01$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 저학년, 실업계학생일수록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 고학년, 인문계학생은 영상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2. 성지식 정도의 집단별 차이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정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 계열별, 매체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에 관한 기초적 지식으로 구성된 20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그 응답의 결과 정답일 경우에는 1점,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은 모두 오답으로 0점 처리한 후 이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구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1) 성지식 정도의 성별, 학년별, 계열별 차이

<표IV-2.1>은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정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IV-2.1> 성지식 정도에 대한 성별, 학년별, 계열별 차이

구 분		통 계 치	<i>N</i>	$\bar{X}$	<i>SD</i>	<i>F</i>
성 별	남		304	9.96	3.48	6.85 **
	여		293	9.25	3.13	
학 년 별	1학년		198	8.72	3.49	11.17 **
	2학년		202	9.95	3.08	
	3학년		197	10.16	3.24	
계 열 별	인문계		296	8.58	3.08	62.22 **
	실업계		301	10.63	3.25	

\*\*p<.01

<표IV-2.1>에서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정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남학생의 평균성적(9.96점)이 여학생(9.25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8.72점), 2학년(9.95점), 3학년(10.16점) 순으로 고학년일수록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학생(8.58점)보다 실업계학생(10.63점)이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평균점수는 20점 만점에 9.61(표준편차 3.30)로 그리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없다.

## 2) 성지식 정도의 성정보 매체유형별 차이

<표IV-2.2>는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정도에 대하여 성정보 매체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IV-2.2> 성지식 정도에 대한 성정보 매체유형별 차이 (%)

유 형 성지식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계
정확한 성지식	119 (42.0)	42 (14.8)	24 (8.5)	96 (34.0)	2 (0.7)	283 (100.0)
부정확한 성지식	138 (43.9)	43 (13.7)	19 (6.1)	112 (35.7)	2 (0.6)	314 (100.0)

<표IV-2.2>에서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정도에 대하여 성정보 매체유형별로 알아보면 교육(42.0%), 영상(34.0%), 언어(14.8%), 인쇄(8.5%), PC·전화매체(0.7%)의 순으로 성지식이 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성지식(47.4%)보다는 부정확한 성지식(52.6%)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성태도의 집단별 차이

고등학생들이 성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8가지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가정에서 성에 대한 태도

고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정에서 성에 대한 태도는 ‘다소 억압적’, ‘방임적’, ‘다소 허용적’, ‘매우 억압적’ 순으로 나타났다(<표IV-3.1>).

<표IV-3.1>에서 고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정에서 성에 대한 태도

를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정에서 성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방임적’ 이거나 ‘매우 허용적’ 혹은 ‘다소 허용적’ 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다소 억압적’ 혹은 ‘매우 억압적’ 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26.32$ ,  $p<.01$ ).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일수록 허용적이라고 인식하다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억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26.79$ ,  $p<.01$ ).

계열별로는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허용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인문계는 억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14.46$ ,  $p<.01$ ).

<표IV-3.1> 가정에서 성에 대한 태도 (%)

구 분 태 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	2	3	인문계	실업계
매우 허용적이다	43 (4.2)	3 (1.0)	13 (6.5)	2 (1.0)	1 (0.5)	13 (4.3)	3 (1.0)
다소 허용적이다	62 (20.3)	49 (16.5)	42 (21.1)	42 (20.8)	27 (13.4)	46 (15.3)	65 (21.5)
방임적이다	107 (35.0)	69 (23.2)	55 (27.6)	65 (32.2)	56 (27.7)	87 (29.0)	89 (29.4)
다소 억압적이다	90 (29.4)	116 (39.1)	61 (30.7)	65 (32.2)	80 (39.6)	97 (32.3)	109 (36.0)
매우 억압적이다	34 (11.1)	60 (20.2)	28 (14.1)	28 (13.9)	38 (18.8)	57 (19.0)	37 (12.2)
$x^2$	26.32**		26.79**			14.46**	

\*\*p<.01

전체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 성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 저학년, 실업계 학생일수록 허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 고학년 그리고 인문계 학생은 억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2) 자기 자신이 성에 대한 태도

고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성에 대한 태도는 ‘어느 정도 관





### 3) 선정적인 성묘사 대중매체에 대한 느낌

고등학생들은 선정적인 성묘사 대중매체에 대한 느낌으로 ‘흥분되고 기분 좋다’, ‘별다른 느낌이 없다’, ‘본대로 행동하고 싶다’ 순으로 나타났다(<표IV-3.3>).

<표IV-3.3> 선정적인 성묘사 대중매체에 대한 느낌 (%)

구 분 태 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	2	3	인문계	실업계
본대로 행동하고 싶다	117 (37.6)	15 (5.1)	39 (18.9)	34 (17.0)	45 (22.3)	70 (23.1)	48 (15.7)
흥분되고 기분좋다	166 (53.4)	54 (18.2)	69 (33.5)	71 (35.5)	65 (32.2)	94 (31.0)	111 (36.4)
별다른 느낌없다	20 (6.4)	155 (52.4)	64 (31.1)	70 (35.0)	68 (33.7)	99 (32.7)	103 (33.8)
매우 불쾌하다	8 (2.6)	72 (24.3)	34 (16.5)	25 (12.5)	24 (11.9)	40 (13.2)	43 (14.1)
$\chi^2$	99.03**		418			5.69	

\*\*p<.01

<표IV-3.3>에서 선정적인 성묘사 대중매체에 대한 느낌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흥분되고 기분 좋다’, ‘본대로 행동하고 싶다’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별다른 느낌이 없다’, ‘매우 불쾌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chi^2=99.03$ ,  $p<.01$ ).

학년별·계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정적인 성묘사 대중매체에 대하여 남학생은 긍정적, 충동적인 경향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부정적, 억압적인 경향이 높은 것을 보면 아직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 4)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

고등학생들은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으로 ‘그냥 참는다’, ‘취미활동 또는 운동’, ‘자위행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IV-3.4>).

<표IV-3.4>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 (%)

구 분 태 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인문계	실업계
그냥 참는다	120 (38.6)	158 (61.7)	108 (55.7)	88 (47.1)	82 (44.1)	125 (44.3)	153 (53.7)
취미활동 또는 운동	78 (25.1)	81 (31.6)	49 (25.3)	49 (26.2)	61 (32.8)	86 (30.5)	73 (25.6)
전화,PC통신을 통한 간접적 성격험	11 (3.5)	2 (0.8)	4 (2.1)	6 (3.2)	3 (1.6)	3 (1.1)	10 (3.5)
자위행위	78 (25.1)	10 (3.9)	21 (10.8)	36 (19.3)	31 (16.7)	48 (17.0)	40 (14.0)
직접적인 성격험	24 (7.7)	5 (2.0)	12 (6.2)	8 (4.3)	9 (4.8)	20 (7.1)	9 (3.2)
$\chi^2$	71.81 **		11.49			12.53 *	

\*p<.05, \*\*p<.01

<표IV-3.4>에서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으로 ‘자위행위’, ‘직접적인 성행위’, ‘전화·PC통신을 통한 간접적인 성격험’ 등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그냥 참는다’거나 ‘취미활동 또는 운동’ 등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chi^2=71.81$ ,  $p<.01$ ).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열별로 보면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그냥 참는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는 실업계보다 ‘자위행위’, ‘직접적인 성격험’ 등으로 해

소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12.53, p<.05$ ).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 저학년, 실업계학생일수록 ‘그냥 참는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 고학년 그리고 인문계학생은 ‘자위행위’, ‘직접적인 성경험’ 등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5) 혼전 순결유지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들은 혼전 순결유지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순결을 지킬 필요 없다’, ‘여성만 지키면 된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아직도 혼전 순결유지에 대하여 전통적 보수주의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IV-3.5>).

<표IV-3.5> 혼전 순결유지에 대한 인식 (%)

구 분 태 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인문계	실업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51 (48.2)	234 (79.1)	135 (66.2)	127 (62.3)	123 (61.2)	187 (61.9)	198 (64.5)
여성만 지키면 된다	83 (26.5)	4 (1.4)	27 (13.2)	25 (12.3)	35 (17.4)	48 (15.9)	39 (12.7)
남성만 지키면 된다	4 (1.3)	9 (3.0)	4 (2.0)	5 (2.5)	4 (2.0)	5 (1.7)	8 (2.6)
순결을 지킬 필요 없다	75 (24.0)	49 (16.6)	38 (18.6)	47 (23.0)	39 (19.4)	62 (20.5)	62 (20.2)
$x^2$	96.60**		3.81			1.89	

\*\*p<.01

<표IV-3.5>에서 혼전 순결유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혼전 순결유지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남학생은 ‘여성만 지키면 된다’ 혹은 ‘순결을 지킬 필요 없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x^2=96.60, p<.01$ ).

학년별·계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혼전 순결유지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여성만 지키면 된다’거나 ‘순결을 지킬 필요 없다’ 등의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 6) 자위행위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들은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자위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IV-3.6>).

<표IV-3.6>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한 인식 (%)

구 분 태 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인문계	실업계
매우 그렇다	35 (11.2)	9 (3.1)	20 (9.9)	14 (6.9)	10 (5.0)	25 (8.2)	19 (6.3)
그렇다	151 (48.4)	67 (22.9)	59 (29.2)	81 (39.7)	78 (39.2)	95 (31.3)	123 (40.9)
그렇지 않다	94 (30.1)	135 (46.1)	67 (33.2)	79 (38.7)	83 (41.7)	109 (35.9)	120 (39.9)
전혀 그렇지 않다	32 (10.3)	82 (28.0)	56 (27.7)	30 (14.7)	28 (14.1)	75 (24.7)	39 (13.0)
$\chi^2$	79.47**		21.98**			16.29**	

\*\*p<.01

<표IV-3.6>에서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하여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chi^2=79.47$ ,  $p<.01$ ).

학년별로는 1학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다’ 등의 반응

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반면 2학년은 ‘그렇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x^2=21.98, p<.01$ ).

계열별로 보면 실업계는 인문계보다 더 긍정적인 반면 인문계(60.6%)는 실업계보다 부정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16.29, p<.01$ ).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학생, 2학년, 실업계학생일수록 더 긍정적인 반면 여학생, 1학년 그리고 인문계학생은 부정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7) 청소년기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들은 청소년기의 성적 충동에 대하여 ‘억제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억제해야 된다’, ‘억제할 필요가 없다’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7>).

<표 IV-3.7> 청소년기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한 인식 (%)

구 분 태 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	2	3	인문계	실업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26 (8.3)	76 (25.3)	40 (19.5)	31 (15.2)	31 (15.3)	78 (25.7)	24 (7.8)
억제할 필요가 있다	182 (58.3)	204 (68.0)	122 (59.5)	138 (67.6)	126 (62.1)	163 (53.6)	223 (72.4)
억제할 필요가 없다	76 (24.4)	15 (5.0)	29 (14.1)	25 (12.3)	37 (18.2)	45 (14.8)	46 (14.9)
전혀 억제할 필요가 없다	28 (9.0)	5 (1.7)	14 (6.8)	10 (4.9)	9 (4.4)	18 (5.9)	15 (4.9)
$x^2$	82.48**		6.38			38.17**	

\*\*p<.01

<표 IV-3.7>에서 청소년기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억제할 필요가 없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x^2=82.48, p<.01$ ).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열별로 보면 실업계는 인문계보다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는 실업계보다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chi^2=38.17, p<.01$ ).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 인문계학생일수록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8) 청소년기 이성친구간에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

고등학생들은 청소년기의 이성친구간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에 대하여 ‘입맞춤/가벼운 포옹’, ‘팔짱 또는 어깨동무’, ‘서로 손잡는 행동’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학생은 성교(13.5%)에 대한 반응도 높게 나타났다(<표IV-3.8>).



<표IV-3.8> 청소년기 이성친구간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 (%)

구 분 태 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인문계	실업계
순수한 대화상대	24 (7.7)	24 (8.0)	16 (7.8)	22 (10.8)	10 (4.9)	28 (9.2)	20 (6.5)
서로 손잡는 행동	28 (9.0)	48 (16.0)	26 (12.7)	23 (11.3)	27 (13.3)	28 (9.2)	48 (15.6)
팔짱 또는 어깨동무	49 (15.7)	88 (29.3)	47 (22.9)	49 (24.0)	41 (20.2)	57 (18.7)	80 (26.1)
입맞춤/가벼운 포옹	144 (46.2)	129 (43.0)	83 (40.5)	86 (42.2)	104 (51.2)	144 (47.2)	129 (42.0)
진한 애무	25 (8.0)	5 (1.7)	15 (7.3)	10 (4.9)	5 (2.5)	17 (5.6)	13 (4.2)
성 교	42 (13.5)	6 (2.0)	18 (8.8)	14 (6.9)	16 (7.9)	31 (10.2)	17 (5.5)
$\chi^2$	57.30**		13.94			15.89**	

\*\*p<.01

<표IV-3.8>에서 학생신분인 청소년기 이성친구간에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에 대한 인식차이를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이성친구간 신체접촉의 범위에 대하여 ‘팔짱 또는 어깨동무’, ‘서로 손잡는 행동’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은 ‘입맞춤/가벼운 포옹’, ‘진한 애무’, ‘성교’ 등 여학생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2=57.30$ ,  $p<.01$ ).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는 ‘입맞춤/가벼운 포옹’, ‘진한 애무’, ‘성교’ 등 실업계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실업계학생은 ‘팔짱 또는 어깨동무’, ‘서로 손잡는 행동’ 등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x^2=15.89$ ,  $p<.01$ ).

전체적으로 보면 여학생, 실업계학생일수록 ‘서로 손잡는 행동’, ‘팔짱 또는 어깨동무’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 인문계학생은 ‘입맞춤/가벼운 포옹’, ‘성교’, ‘진한 애무’ 등 여학생, 실업계학생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성정보에 따른 매체유형별 성태도

고등학생들이 성정보를 획득하는 주요매체에 따라 성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태도와 관련 있는 6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 1) 선정적인 성묘사 장면을 접했을 때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이 교육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체에 비해 선정적인 성묘사 장면을 접했을 때 ‘별다른 느낌이 없다’, ‘매우

불쾌하다' 등의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매체(35.3%)에 의한 경우에는 '본대로 행동하고 싶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쇄매체(44.2%)에 의한 경우에는 '흥분되고 기분 좋다'는 반응이 다른 매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IV-4.1>).

<표IV-4.1> 선정적인 성묘사 장면을 접했을 때 매체유형별 태도 (%)

유 형 태 도	매체유형별 태도 (%)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본대로 행동하고 싶다.	27 (11.0)	30 (35.3)	6 (14.0)	50 (24.0)	-
흥분되고 기분 좋다.	64 (26.0)	35 (41.2)	19 (44.2)	76 (36.5)	2 (5.0)
별다른 느낌 없다.	98 (39.8)	14 (16.5)	14 (32.6)	67 (32.2)	2 (5.0)
매우 불쾌하다.	57 (23.2)	6 (7.1)	4 (9.3)	15 (7.2)	-
$\chi^2$	68.54*				

\*\*p<.01

<표IV-4.1>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정적인 성묘사 장면을 접했을 때의 태도에 대하여 매체유형별로 알아보면 교육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 '흥분되고 기분 좋다', '매우 불쾌하다' 순으로 반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언어매체에 의한 경우에는 '흥분되고 기분 좋다', '본대로 행동하고 싶다', '별다른 느낌이 없다'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쇄·영상매체 등에 의한 경우는 '흥분되고 기분 좋다', '별다른 느낌이 없다', '본대로 행동하고 싶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chi^2=68.54, p<.01$ ).

단, PC·전화매체에 의한 경우는 유효빈도가 극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 2) 성적 충동의 해소 방법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이 교육(58.1%)·인쇄(50.0%)·영상(44.3%)매체 등을 통해 성 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으로 ‘그냥 참는다’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언어매체에 의한 경우에는 다른 매체에 비해 ‘자위 행위’(25.0%), ‘직접적인 성경험’(12.5%) 등이 높게 나타났다(<표IV-4.2>).

<표IV-4.2>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

유 형 태 도	매 체 유 형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그냥 참는다	133 (58.1)	28 (35.0)	20 (50.0)	86 (44.3)	2 (50.0)
취미활동 또는 운동	65 (28.4)	19 (23.8)	9 (22.5)	62 (32.0)	1 (25.0)
전화, PC통신을 통한 간접적인 성경험	2 (0.9)	3 (3.8)	2 (5.0)	3 (1.5)	-
자 위 행 위	24 (10.5)	20 (25.0)	7 (17.5)	34 (17.5)	-
직접적인 성경험	5 (2.2)	10 (12.5)	2 (5.0)	9 (4.6)	1 (25.0)
$\chi^2$	40.65**				

\*\*p<.01

<표IV-4.2>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적 충동의 해소 방법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매체유형별로 알아보면 교육·인쇄·영상매체 등을 통해 성 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으로 ‘그냥 참는다’, ‘취미활동 또는 운동’, ‘자위행위’ 순으로 나타난 반면 언어매체에 의한 경우에는 ‘그냥 참는다’, ‘자위행위’, ‘취미활동 또는 운동’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쇄(5.0%)·언어매체(3.8%)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전화·PC통신을 통한 간접적인 성경험’에 대한 반응도 보였다( $\chi^2=40.65$ ,  $p<.01$ ).

단, PC·전화매체에 의한 경우는 유효빈도가 극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 3) 혼전 순결유지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은 교육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혼전 순결유지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77.0%)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언어(28.2%)·인쇄(25.6%)·영상매체(23.2%) 등에 의한 경우는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표IV-4.3>).

<표IV-4.3> 혼전 순결유지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

유형 태도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반드시 지켜야 한다	191 (77.0)	33 (38.8)	25 (58.1)	121 (53.5)	1 (25.0)
여성만 지키면 된다	13 (5.2)	26 (30.6)	7 (16.3)	35 (16.9)	-
남성만 지키면 된다	8 (3.2)	2 (2.4)	-	3 (1.4)	-
순결을 지킬 필요 없다	36 (14.5)	24 (28.2)	11 (25.6)	48 (23.2)	3 (75.0)
$\chi^2$	66.44**				

\*\*p<.01

<표IV-4.3>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혼전 순결유지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매체유형별로 알아보면 교육·인쇄·영상매체 등에 의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혼전 순결유지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킬 필요 없다’ 순으로 나타난 반면 언어매체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성만 지키면 된다’, ‘지킬 필요 없다’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매체에 의한 경우에는 ‘여성만 지키면 된다’,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chi^2=66.44$ ,  $p<.01$ ).

단, PC·전화매체에 의한 경우는 유효빈도가 극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 4)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은 교육(69.2%)·영상매체(57.6%)등을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언어(69.4%)·인쇄매체(61.9%)등에 의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표IV-4.4>).

<표IV-4.4>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

태도 \ 유형	매체유형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매우 그렇다	7 (2.8)	12 (14.1)	4 (9.5)	17 (8.3)	-
그렇다	69 (27.9)	47 (55.3)	22 (52.4)	70 (34.1)	3 (7.5)
그렇지 않다	111 (44.9)	21 (24.7)	13 (31.0)	75 (36.6)	1 (2.5)
전혀 그렇지 않다	60 (24.3)	5 (5.9)	3 (7.1)	43 (21.0)	-
$\chi^2$	55.37**				

\*\*p<.01

<표IV-4.4>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매체유형별로 알아보면 교육·영상매체 등을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쇄·언어매체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24.3%)·영상매체(21.0%)등에 의한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chi^2=55.37, p<.01$ ).

단, PC·전화매체에 의한 경우는 유효빈도가 극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 5)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이 교육(89.2%)·영상매체(77.5%)등을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언어매체(36.9%)에 의한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표IV-4.5>).

<표IV-4.5>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

태도 \ 유형	매체유형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52 (20.7)	7 (8.3)	2 (4.7)	39 (18.8)	-
억제할 필요가 있다	172 (68.5)	46 (54.8)	29 (67.4)	122 (58.7)	3 (7.0)
억제할 필요가 없다	21 (8.4)	20 (23.8)	8 (18.6)	37 (17.8)	1 (2.0)
전혀 억제할 필요가 없다	6 (2.4)	11 (13.1)	4 (9.3)	10 (4.8)	-
$\chi^2$	42.67**				

\*\*p<.01

<표IV-4.5>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매체유형별로 알아보면 교육·영상매체 등을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순으로 나타난 반면 언어·인쇄매체 등에 의한 경우에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 ‘억제할 필요가 없다’ 순으로 나타났다( $\chi^2=42.67$ ,  $p<.01$ ).

단, PC·전화매체에 의한 경우는 유효빈도가 극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 6) 이성친구간 허용되는 신체접촉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이 교육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이성친구간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에 대하여 ‘순수한 대화상대’, ‘서로 손잡는 행동’, ‘팔짱 또는 어깨동무’ 등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언어매체에 의한 경우에는 ‘입맞춤/가벼운 포옹’, ‘성교’, ‘진한 애무’ 등의 신체접촉에 대해 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표IV-4.6>).

<표IV-4.6> 이성친구간 허용되는 신체접촉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

유형 태도	교육매체	언어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PC·전화매체
순수한 대화상대	27 (10.8)	1 (1.2)	3 (7.0)	15 (7.2)	1 (3.3)
서로 손잡는 행동	38 (15.1)	5 (5.9)	5 (11.6)	22 (10.6)	-
팔짱 또는 어깨동무	72 (28.7)	10 (11.8)	8 (18.6)	43 (20.7)	-
입맞춤/가벼운 포옹	102 (40.6)	43 (50.6)	21 (48.8)	99 (47.6)	2 (6.7)
진한 애무	5 (2.0)	9 (10.6)	3 (7.0)	13 (6.3)	-
성교	7 (2.8)	17 (20.0)	3 (7.0)	16 (7.7)	-
$\chi^2$	64.63**				

\*\*p<.01

<표IV-4.6>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성친구간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매체유형별로 알아보면 교육·인쇄·영상매체 등을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입맞춤/가벼운 포옹’, ‘팔짱 또는 어깨동무’, ‘서로 손잡는 행동’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언어매체에 의한 경우에는 ‘입맞춤/가벼운 포옹’, ‘성교’, ‘팔짱 또는 어깨동무’, ‘진한 애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chi^2=64.63$ ,  $p<.01$ ).

단, PC·전화매체에 의한 경우는 유효빈도가 극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는 고교생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성정보 매체유형에 따라 그들의 성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교생들의 성교육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수준을 결정하며, 보다 나은 성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고교생은 어떤 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며 집단별(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지식 정도는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성태도는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성정보에 따른 매체유형별(교육, 언어, 인쇄, 영상, PC·전화매체) 성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제주도내 인문·실업계, 남·여자고등학교 각 1개교씩 총 4개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다시 학년별 무선 표집방법에 의하여 1개 학급씩 선정하여 조사 대상자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자의 개인적 특성,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 및 성에 대한 지식·태도 등을 포괄하여 총 4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1998년 7월 13일 예비조사를 거쳐 9월 14일부터 9월26일까지 설문 조사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PC<sup>+</sup> 프로그램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절차를 밝혔다.

이에 따른 응답자들의 응답결과를 분석·해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의 집단별 차이

고등학생들이 획득하고 있는 성정보 내용에 따른 매체유형을 알아본 결과 피임방법, 임신과 출산, 남녀생식기능, 월경과 몽정 등에 대한 정보는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성교제, 자위행위 등에 대한 정보는 언어매체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인공유산, 성병/에이즈, 성행위, 성폭력 등은 영상매체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낮지만 성폭력(2.7%)이나 자위행위(2.9%) 등에 대하여는 PC·전화매체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다른 성정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별(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피임방법, 임신과 출산, 인공유산, 성병/에이즈, 남녀생식기능, 성폭력, 자위행위, 월경과 몽정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매체를 통해 획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은 언어·영상·인쇄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한 정보는 여학생이 언어매체, 남학생은 영상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행위에 대한 정보는 여학생이 영상·인쇄매체, 남학생은 언어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인공유산, 성병/에이즈, 남녀 생식기능, 성폭력, 자위행위 등의 정보에 대하여 매체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피임방법, 이성교제, 임신과 출산, 성행위, 월경과 몽정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열별로 보면 실업계가 피임방법, 인공유산, 남녀 생식기능 등에 대해

여 교육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는 영상·언어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병/에이즈, 성행위, 자위행위, 월경과 몽정 등에 대한 정보는 인문계가 영상·언어매체 등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실업계는 인쇄매체에 의한 정보획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성교제, 임신과 출산, 성폭력 등에 대하여는 매체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성지식 정도의 집단별 차이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정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 계열별, 매체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평균성적(9.96점)이 여학생(9.25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고학년일수록 평균점수(1학년: 8.72점, 2학년: 9.95점, 3학년: 10.16점)가 높았고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학생(8.58점)보다 실업계학생(10.63점)이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체유형별로는 교육(42.0%), 영상(34.0%), 언어(14.8%), 인쇄(8.5%), PC·전화매체(0.7%)의 순으로 성지식이 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정확한 성지식(47.4%)보다 부정확한 성지식(52.6%)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성태도의 집단별 차이

### (1) 가정에서 성에 대한 태도

가정에서 성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 저학년, 실업계학생일수록 허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 고학년, 인문계학생은 억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2) 자기 자신이 성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이 성에 대하여 남학생, 2학년일수록 관심이 많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학생, 1학년은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선정적인 성묘사 대중매체에 대한 느낌

선정적인 성묘사 대중매체에 대하여 남학생은 ‘흥분되고 기분 좋다’, ‘본대로 행동하고 싶다’ 등의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별다른 느낌이 없다’,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x^2=99.03, p<.01$ ).

학년별·계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으로 여학생, 실업계학생일수록 ‘그냥 참는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 인문계학생은 ‘자위행위’, ‘직접적인 성경험’ 등으로 해소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혼전 순결유지에 대한 인식

혼전 순결유지에 대하여 여학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남학생은 ‘여성만 지키면 된다’ 혹은 ‘순결을 지킬 필요 없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79.47, p<.01$ ).

학년별·계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6)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한 인식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하여 남학생, 2학년, 실업계학생일수록 긍정적인 반면 여학생, 1학년 그리고 인문계학생은 부정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7) 청소년기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한 인식

청소년기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하여 여학생, 인문계학생일수록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남학생은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8) 학생신분인 청소년기 이성친구간에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

청소년기 이성친구간에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에 대하여 여학생, 실업계학생일수록 ‘서로 손잡는 행동’, ‘팔짱 또는 어깨동무’ 등을 허용하는 경

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 인문계학생은 ‘입맞춤/가벼운 포옹’, ‘진한 애무’, ‘성교’ 등을 허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4) 성정보에 따른 매체유형별 성태도

##### (1) 선정적인 성묘사 장면을 접했을 때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이 교육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선정적인 성묘사 장면을 접했을 때 ‘별다른 느낌이 없다’,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언어·인쇄·영상매체 등에 의한 경우에는 ‘흥분되고 기분 좋다’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x^2=68.54, p<.01$ ).

##### (2)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이 교육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으로 ‘그냥 참는다’(58.1%)는 경향이 다른 매체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영상매체에 의한 경우에는 ‘취미활동 또는 운동’(32.0%), 인쇄매체에는 ‘전화·PC통신을 통한 간접적인 성경험’(5.0%) 그리고 언어매체에 의한 경우에는 ‘자위행위’(25.0%), ‘직접적인 성경험’(12.5%) 등에 각각 높게 나타났다( $x^2=40.65, p<.01$ ).

##### (3) 혼전 순결유지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이 교육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혼전 순결유지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77.0%)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언어(28.2%)·인쇄(25.6%)·영상매체(23.2%) 등에 의한 경우에는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언어매체에 의한 경우에는 ‘여성만 지키면 된다’ 혹은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66.44, p<.01$ ).

##### (4)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이 교육(69.2%)·영상(57.6%)매체 등을 통해 성정보를 획득

하는 경우에는 자위행위의 정상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언어(69.4%)·인쇄매체(61.9%)등에 의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55.37, p<.01$ ).

#### (5)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이 교육(89.2%)·영상매체(77.5%)등을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성적 충동의 억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언어매체(36.9%)에 의한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x^2=42.67, p<.01$ ).

#### (6) 이성친구간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에 대한 매체유형별 태도

고등학생들이 교육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이성친구간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에 대하여 ‘순수한 대화상대’, ‘서로 손잡는 행동’, ‘팔짱 또는 어깨동무’ 등의 행동에 가장 높게 반응을 보인 반면 ‘입맞춤/가벼운 포옹’, ‘진한 애무’, ‘성교’ 등의 행동에는 언어매체에 의한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x^2=64.63, p<.01$ ).

## 2.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이 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매체유형은 성정보 내용에 따라 다르고 집단별(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지금까지의 성상담과 성교육 방식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성지식의 정도는 남학생, 고학년, 실업계학생일수록 높지만 남녀 모두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의외로 결핍되어 있으며, 성정보 매체유형별로 보면 교육, 영상, 언어, 인쇄, PC·전화매체의 순으로 보다 더 정확한 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애매 모호하고 이중적인 가운데 다분히 남성 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학생은 여전히 순결이데올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고등학생들은 남녀 모두 성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로 관심을 두는 방향이 다르다. 즉 남학생, 인문계학생일수록 신체적, 시각적 성적 자극에 관련된 반응이 높는데 비해 여학생은 정서적인 면과 관련된 반응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섯째, 고등학생들이 교육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보수적, 소극적,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언어·인쇄·영상매체 등을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 능동적, 충동적이다. 또한 신체 접촉에 대한 성적 허용성은 언어, 영상, 인쇄, 교육매체 순으로 보다 더 강하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는가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3. 제 언

#### 1) 차후의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차후의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대학생 또는 비행청소년까지도 확대 실시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좀더 광범위하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성정보 매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한 교육적 대안도 고찰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성적 발달단계에 맞는 성에 관한 표준화된 검사지가 개발되어야 하며, 성에 관한 좀더 밀도 있는 조사를 위해 상세한

면접 지침을 개발하여 심층면접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들이 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매체유형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를 기초로 성교육/성상담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 2) 교육적 대안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성교육 정규시간을 설정하고 특별활동에도 성교육/성상담 과정을 개설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알맞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인간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나 부모에 대해서도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사·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있어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교사·부모 자신이 성에 대하여 보다 솔직하고 우호적이며 양성(兩性) 평등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은 이성교제, 자위행위 등의 성정보 매체에 대하여 언어 매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또래상담을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교육·성상담을 전파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영상매체(TV, 비디오, 영화 등) 및 인쇄매체(만화, 신문, 잡지, 소설 등)는 청소년들의 성행위, 성폭력에 대한 정보 매체로서 성충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PC·전화매체 또한 새로운 성정보 매체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정확시키는 일과 모든 유해환경을 철저히 지속적으 정비하는 일은 올바른 청소년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긴급한 과제라 하겠다.

여섯째, 청소년들에게 보지 말라고 금지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한 좋은 영상물을 제시하고 영상물을 보고 난 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성담론의 자연스러운 표면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보화 사회를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바로 보고 이용하는 비판적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른들이 성에 대한 이중잣대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모방하게 된다. 어른들이 먼저 변화하지 않고 자기반성 없이는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도 그들의 성문화를 비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어른의 말보다는 행동을 본받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강지원 외(1994). 「청소년의 비행심리와 인성지도」, 법무부.  
교육부(1993). 「고등학교 성교육 자료」, 교육부.  
\_\_\_\_\_(1996). “학교 성교육의 실제”, 「교육 월보」, 통권 제176호.  
\_\_\_\_\_(1998). “청소년 문화의 오늘, 그 교육의 과제”, 「교육 월보」, 통권 제197호.  
권이중(1993). 「청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_\_\_\_\_(1996).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권준현(1997). 정보화 사회에서 유해매체의 접촉 양태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규원(1997). “대중매체와 전자매체에 의한 성의 상품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김명혜 외(1994). 「성·미디어·문화」, 나남 출판.  
김병석 외(1998). “PC통신상담에 대한 설문조사”, 청소년대화의 광장.  
김상원(1997).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 방안”, 「청소년 성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 대한가족계획협회.  
김상원 외(1996). 「남자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_\_\_\_\_(1997).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김성태(1975). 「발달심리학」, 범문사.  
김영화(1992). 청소년 성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옥(1988). 학교 성교육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정일(1992).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태(1992). 청소년의 성교육, 제 5권 제 2호.
- 김정희(1995). “성과 문화”, 「성교육·성상담 교본」, 대한가족계획협회.
- 김종희(1991). 중등학교 여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차영(1990).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사의 성지식, 태도 및 학생에 대한 성교육 요구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 제3권 제1호.
- 대한가족계획협회(1996). 「청소년 성교육 지침서 I(신체적인 면)」, 성문화연구소/대한가족계획협회부설.
- \_\_\_\_\_ (1996). 「청소년 성교육 지침서 II(사회적 측면)」, 성문화연구소/대한가족계획협회부설.
- \_\_\_\_\_ (1997). 「청소년 성상담 전화 활동 보고서(제5집)」, 대한가족계획협회.
- 또 하나의 문화동인들(1995).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제 7호.
- \_\_\_\_\_ (1995).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제 8호.
- \_\_\_\_\_ (1997).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1」, 또 하나의 문화, 제 13호.
- \_\_\_\_\_ (1997).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2」, 또 하나의 문화, 제 14호.
- 류혜옥(1986). 청소년의 성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교부(1980). 「교사용 성교육 자료」.
- 문교부(1983). 「중·고등학교 교사용 성교육 지도자료」.



- 박성익(1998). 「사이버 세계와 청소년 상담」,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박인혜 외(1996). “남녀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 제9권 제1호.
- 박현선(1986).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문제에 전달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 방미라(1990).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친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 제3권 제1호.
- 보건복지부(1997). 「성교육편」, 국립 보건원 훈련부.
- 福富 護(안창선·이육범 편역, 1996). 「사춘기 성과 행동」, 교육과학사.
- 서울특별시교육청(1998). 「성과 행복」,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심광원(1989). 대중매체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창선(1998). “성교육의 방법”, 「성 교육학」, 교육과학사.
- 양성숙(1992). 청소년의 성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제순(1998). 제주도 중·고등학교의 성교육 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가현(1996). “청소년 성문화와 학교 성교육의 방향”, 제주 여민회.
- 이귀현(1985). 성교육 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병우(1996). 현대 대중매체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지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순열·배병주(1997). 「성교육 학습지도안」, 도서출판 한빛.
- 이영숙 외(1995). 「청소년 이성교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윤선(1987). 청소년기 성태도 형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통계적 관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정(1990).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지식 및 태도, 성교육 요구시기에 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인섭(1987).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춘재 외(1993). 「청년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이한우(1990). 청소년의 음란매체 경험과 성적 충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규(1996). 영상매체가 청소년 성행동에 미치는 실태분석,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현숙(1993). 중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경숙(1996). 성교육 집단상담의 중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광자(1996). 고등학생의 자아 정체감과 성의식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 효성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병림(1976). 「청년심리학」, 범문사.
- 조원정 외(1996). 「성교육」, 현문사.
- 조원표(1993). 고교생의 성고민과 욕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수일(1996). 대중매체가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순희(1990).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 연구, 「한국학교 보건학회」, 제3권 제1호.
- 하재청 외(1997). 성의 과학, 아카데미서적.
- 한경희(1991). 중등학생의 성지식 실태와 성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육신문사(1996). “성교육, 이제 달라져야 한다”, 「월간 새교육」, 통권 505호.
- 한국여성개발원(1994). 「중학생 학부모용 읽기 자료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3). “컴퓨터 음란 영상물 접촉실태 및 영향”,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한국학부모교육학회(1998). 「성교육학」, 교육과학사.
- 홍강의(1993). “성개념의 형성과정”, 「성교육 상담교실자료집」, 서울 YMCA.
- \_\_\_\_\_(1996). “청소년 성문화”, 「2020년, 우리 청소년의 모습은?」, 사회정신건강연구소(삼성생명).
- Carrera, M. A. and Mary S. Calderone(1981). “The SIECUS/New York University Principles Basic to Education for sexuality” , J Sch Health, Vol 51.
- Hurlock, E. B.(1973). “Adolescent Development”,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Rosenzweig, M R. and Leiman, A. L.(1996). “Physiological Psychology” , Heath.

〈Abstract〉

**A Study on the type of medium about sexual information  
and sexual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Ko, Haeng-Ja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Chul-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situation about with what kinds of medium high school students obtain the sexual information. And it aims to examine how different are their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um about sexual information. For that, this study intends to set the direc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sexual education and decide the level of education. Also it aim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 for the better sexual counseling.

According to this purpose, I set the following research task.

First, with what kinds of medium they obtain the sexual information and are there any differences by group(sex, grade, department)?

Second, are there any differences about their state of sexual knowledge by group?

Third, are there any differences about their sexual attitude by group?

Fourth, are there any differences about the sexual attitude by the type of medium(education, language, print, video, PC, telephone) according to the sexual informatio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To solve that, I selected total four schools consisted of an academic and commercial high school, girls' and boys' high school in Chejudo. Among them, selecting each one class according to the gathering method by grade, I carried a questionnaire to the 613 subjects. The questionnaire were consisted of total 41 questions including an individual character(3 questions), a type of medium according to the content of sexual information(10) and a sexual knowledge(20) · attitude(8).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PC<sup>+</sup> program and was implemented with percentage, F-Verification and Chi-Square( $\chi^2$ ).

Then I followed a procedure to explain that. The results of study according to tha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 type of medium to obtain sexual information was different from the content of sexual information. Also there were differences by sex, grade and department. So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method of sexual counseling and education.

Second, the boys, high grade and commercial school students were higher in the state of sexual information. However, unexpectedly they(boys and girls) had little sexual knowledge. Seeing the type of medium to obtain sexual information, the order in getting the more accurate sexual information was education, video, language, print, PC and telephone.

Third, their sexual attitude was very vague and masculine tendency. Also most girls still had virginal purity ideology.

Fourth, high school students regardless of boys and girls were interested in the sex but their concern was different. In other words, the boys and academic school students responded very highly to the physical and visual sexual impetus. But the girls showed a sharp response to the emotional sides.

Fifth, in case of getting the sexual information through educational medium, they showed conservative, passive and negative attitude. Meanwhile getting that through language, print, video and media, they were more active, positive and impulsive.

These suggests that their sexual attitude can be changed according to a medium to obtain sexual information.

##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청소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아울러 청소년들의 성태도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므로 청소년 여러분의 개인 신분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 결과는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 결과가 청소년 여러분의 성장담과 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8년 9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 행 자

###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1. 성 별 : 남자 ( ) 여자 ( )
2. 학년별 : 1학년 ( ) 2학년 ( ) 3학년 ( )
3. 계열별 : 실업계 ( ) 인문계 ( )

II. 다음은 성정보 내용에 따른 성정보 매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보 기>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매체(선생님에 의한 성교육 및 지도)</li> <li>2. 언어매체(친구, 선배들과 나누는 말)</li> <li>3. 인쇄매체(소설, 잡지, 만화, 신문 등)</li> <li>4. 영상매체( TV, 비디오, 영화 등)</li> <li>5. PC매체(게임, CD-ROM, PC 통신망 등)</li> <li>6. Phone매체(음성정보 등)</li> </ol> |
|---|

※ 다음과 같은 성정보는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위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해당란에 적어 주세요.

성 정보 \ 구 분	성정보 경로매체 (보기에서 하나만 선택)
1) 피임방법	
2) 이성교제	
3) 임신과 출산	
4) 인공유산(낙태)	
5) 성병 / 에이즈	
6) 남녀 생식기능	
7) 성행위(키스, 포옹, 성교 등)	
8)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9) 자위행위	
10) 월경과 몽정	

III. 다음은 성정보 매체유형과 성지식 수준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과 일치되는 번호에 ○표하세요.

1. 정자를 만드는 곳은 고환이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2. 처녀막은 성교 경험이 없는 여자만이 가지고 있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3. 성관계시 피임을 해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4.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의 성기를 깨끗이 씻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5. 월경기간 중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6. 성기의 크기는 키나 몸집, 체형과 관련이 있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7.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결혼 후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8. 성병은 키스나 밀접한 피부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9. 성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임신을 해도 태아에게 문제가 없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0. 에이즈는 동성연애나 주사바늘을 통해서만 생기는 병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1. 콘돔을 사용하면 임신과 성병을 예방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2.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가족계획의 좋은 방법이므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3. 몽정은 스스로의 정신력으로 막을 수 있는 생리현상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4. 남성이 여성보다 외부적으로 성적인 자극에 더 충동적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5. 자위행위는 정신적, 육체적 만족감을 주게 되므로 자주 행하여도 해롭지 않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6. 성적인 욕구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7. 남자는 여자보다 생리적으로 성충동이 강하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8. 한 번의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아이를 못 갖는 경우도 있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9.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20.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IV. 다음은 여러분이 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대답과 일치되는 번호에 ○  
표하세요.



1. 여러분이 성장 과정시 가정에서 성에 대한 태도는?

- ① 매우 허용적이다.      ② 다소 허용적이다.      ③ 방임적이다.  
④ 다소 억압적이다.      ⑤ 매우 억압적이다.

2. 여러분이 성에 대한 관심은?

- ① 많은 관심이 있다.      ②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3. 노골적으로 성을 묘사한 대중매체(영화, TV, 비디오, PC, 만화,  
잡지, 소설 등)를 접했을 때의 느낌은?

- ① 본대로 행동해 보고 싶은 충동이 있다.  
② 흥분되고 기분이 좋다.  
③ 별다른 느낌이 없다.      ④ 매우 불쾌하다.

4. 성적 충동을 느낄 때 어떻게 해소하는가?

- ① 그냥 참는다.                      ② 취미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
- ③ 전화, PC통신 등을 통해 간접적인 성경험을 한다.
- ④ 자위행위를 한다.                ⑤ 직접적인 성경험을 한다.

5. 결혼 전에는?

- ①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
- ② 여성만 순결을 지키면 된다.
- ③ 남성만 순결을 지키면 된다.
- ④ 순결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6. 자위행위가 정상적인 행동인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7. 청소년기 때의 성적 충동은?

- ① 반드시 억제해야만 된다.        ② 억제할 필요가 있다.
- ③ 억제할 필요가 없다.              ④ 전혀 억제할 필요가 없다.

8. 청소년기 학생신분으로 이성친구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① 순수한 대화상대                      ② 서로 손잡는 행동
- ③ 팔짱 또는 어깨동무                ④ 입맞춤/가벼운 포옹
- ⑤ 진한 애무                              ⑥ 성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